

중앙회소식

1. 8월 임시이사회

일시 : 1986.8.22. 7시
 장소 : 협회사무국
 참석자 : 김용천 박정기 임성수 홍정선 민경욱
 이소영 오경환
 토의내용 : 각 지부 대의원을 늦어도 10월 5일까지 중앙회 사무국으로 20인당 1명씩 선출보고.

2. 9월 정기이사회

일시 : 1986.9.12. 7시
 장소 : 협회사무국
 참석자 : 김용천 김정숙 박정기 오경환 정진우
 백진 홍성렬 장경숙 황현교 홍정선
 임성수 배성수 이재갑 명철제
 토의내용 : 감사의안건
 1.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업무대행하며 임원결원시 차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동반출마원칙규정 삽입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2인이 함께 출마
 3. 운영규정 제 5장 22조 1항을 삭제
 (1항 : 본 협회의 선거직임원 임후보는 동일직에 2회까지 임후보 할 수 있다.)
 4. 운영규정 제 10조 2항에서 1년을 5년으로 수정.
 (2항 : 본 협회의 임명직임원은 본 협회에 입회하여 5년이상 경과한 회원중에서 회

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3. 물리치료 시설이 되어 있는 병·의원급 50여군데에 “물리치료사 실태 현황 파악자료” 설문조사 발송.

4. 전국 지부장회의

일시 : 86년 10월 4일
 곳 : 유성 대운장
 참석자 : 서울서부지부, 경기성남지부, 전북지부, 제주지부 제외 전지부장

5. 추계 학술대회

일시 : 86년 11월 15~16일(2일)
 곳 : 대전 관광호텔
 회비 : 16,000원

6. 김용천 회장

지난 8월 8일 범물림척추진위원회로부터 대의원으로 위촉되었다.

7. 86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일시 : 86년 11월 29일
 장소 : 미정

8. 이번호 병원탐방은 쉽니다.

지부회소식

▣ 동부지부

1. “제 2차 보수교육 및 차기 지부장과 대의원 선거 실시”
 : 본 지부에서는 제 2차 보수교육과 차기 지부장 및 대의원 선거를 아태와 같이 실시하였으며 또한 동부지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식도 아울러 거행하였다.
2. 제 2차 지부 보수교육 실시
 일시 : 86년 8월 21일 오후 6시
 장소 : 경희의료원 시내 한방병원

연제 : 일본 물리치료의 현 실태
 연자 : 이상민 선생님(보훈병원 물리치료실)
 참석인원 : 80명
 평점 : 3

3. 차기 지부장 및 대의원 선출
 차기 지부장 : 황성수 (546) 동주병원
 직전 회장 : 박승만 (993) 경희의료원
 대 의 원 : 이복희 (2) 한대병원
 이상민 (103) 보훈병원
 황한익 (159) 경희의료원
 김경년 (583) //



윤 홍 일 (988) 한대병원
유 영 덕 (1113) 동산성심병원
이 국 행 (1324) 해민병원

당연직대의원 : 김정숙 (104) 경찰병원·협회부회장

4. 수상자 명단

엄기매 부회장
윤홍일 협보 책임자
강주영 총무
김도순 섭외부장
김경년 학술부장
양택용 감사
김정훈 "

서부지부

1. 지부 정기총회

지난 86년 9월 25일(목)에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지부회장 및 대의원 선출이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있었다. 당선임원은 다음과 같다.

— 아 래 —
서부지부 회장 : 표 성 봉
총무 : 이 한 석
대의원 : 김 인 숙
도 영 현
박 성 학
유 중 면
명 철 제

2. 지부 보수교육

86년 지부 보수교육이 86년 9월 25일(목)에 회원 50명의 참석하에 실시되었다.

강사 : 김 인 숙 선생님
제목 : 상박신경총 분만마비의 신경 발달 반사 촉진법

3. 세브란스병원 이한석 선생님께서 1986년 11월 4일 오후 12시 30분에 고려예식장에서 화촉을 밝히십니다. 선생님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남부지부

1. 남부지부에서는 지부임원의 조기선출로 지부업무의 정확한 인수인계 및 차기회기년도의 차질없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 3대(87,88회기년도) 지부장 및 대의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였다.

* 선출일시 : 1986년 7월 15일 <화> 오후 8시
강남성심병원 강당에서

* 선출 임원 명단

지부장—김영민(영등포 성모병원)
감 사—김성호(홍익병원)
대의원—임성수, 이재갑, 홍정선, 김성호,
김영민, 박 철, 우광석, 김정숙,
박상은, 한미선, 석미경

총무부장—우광석
업무부장—정택선
재무부장—왕길현, 정호철
사업부장—이현주
홍보부장

북부지부

1. 9월 보수교육

* 일시 : 86년 9월 4일 18시 30분
* 곳 : 이화대학병원 8층 회의실
* 연제 : H,N,P를 위한 Traction 사용방법
* 연자 : 박윤진 선생님(우신향병원)
* 참석인원 : 54명
* 이수평점 : 3평점

2. 차기년도 임원선출

— 86년 정기총회에서 —

지난 10월 7일 이화대학병원 8층 회의실에서 열린 86년 정기총회에서 차기 87, 88년도 지부 살림을 이끌어 갈 새로운 임원 선출에서 현 지부장인 장경숙 지부장(이화대학병원)이 재선출되었으며 총무는 홍성렬 선생님이 맡으셨다. 한편 대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당연직대의원 : 정진우(서울대학병원)
유인규(고대혜화병원)
장경숙(이화대학병원)
* 신임대의원 : 함용운(고대물리치료과교수실)
박옥화(한국병원)
배승학(신한병원)
임인혁(서울대학병원)
홍성렬(학교건강관리소)
김인복(서울대학병원)
윤범철(고대혜화병원)
* 감 사 : 박윤진(우신향병원)

충남지부

1. 임원회의 개최

일시 : 1986년 9월 2일
장소 : 선병원 물리치료실
참석자 : 회장 김호봉(선병원)

부회장 최임순(대전대학부속 한방병원)
 총무 양태원(성모병원)
 학술부장 김종대(제일한의원)
 사업부장 정경일(송재정형외과)
 감사 최용암(을지병원)

토의내용 : 1986년도 지부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대한 논의.

2. 개업

김종대 제일한의원

3. 취업

박태성 서광외과

이종배 동대전외과

이정택 유외과

▣ 충북지부

1. 이영준 선생님(서울병원 물리치료실장)의 청주 새마을 자모회 초청 강의에 대하여

주최 : 청주 새마을 자모회

일시 : 1986년 8월 29일

장소 : 청주 덕성국민학교

강연주제 : 물리치료와 현대병(추간관 탈출증, 관절염, 비만증)

약속된 30분의 무려 3배인 1시간 30분에 걸친 열강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이번 강연은 관심을 더해가는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으로 기대된다.

2. 축 <개설>

민명식(보은군 보은읍 동계의원 물리치료실 개업)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실시중인 보은읍에 최초로 물리치료실을 개설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3. 축 <취업>

임기순(2665) : 옥천군 옥천읍 한외과 의원

이순우 : 청주 양로원(현양원)

▣ 대구·경북도회

1. '86년도 대구·경북도회 신입회원 연수교육

지난 7월 19일 대구보건전문대학에서 대구·경북도회의 60여명의 신입회원들이 참석하여 '86년도 신입회원 연수교육을 가졌다.

이날 환영사에 중앙회 김용천 회장님, 격려사에 양성주 전대의원의장님, 협회연혁에 박태준 대구·경북도회장님, 그리고 물리치료사 윤리강연을 배성수 시도회 이사님께서 지도해 주셨으며, 기타 물리치료사로써의 자부심과 윤리, 보수교육, 의료보험, 협회운영 등 신입회원들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실질적 내용을 지도함으로써 회원들의 양·질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2. '86년도 제 3차 정기집담회 및 보수교육

대구·경북도회에서는 86년도 제 3차 정기집담회 및 보수교육을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30분 동산병원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강사로는 송풍로 신경외과의원 원장님께서 “뇌졸중 환자의 진단과 치료”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셔서 물리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제 2회 영·호남 친선대회

지난 8월 3일 전남·전북도회와 대구·경북도회에서는 지난해 전남·전북도회의 주최에 이어 금년에는 대구·경북도회의 주최로 합철 해인사에서 영·호남 친선대회를 가졌다.

이날은 중앙회의 박정기 부회장님을 모신 가운데 총 200여명의 회원이 해인사 관광과 장기자랑을 통하여 친목과 교제를 나누었으며, 앞으로 부족한 면은 서로 협조하면서 우의를 다지기로 하였다.

4. 회원 동정

박규현 회원	- 동아정형외과의원 물리치료실 근무
이택을	〃 - 경주 동국대 한방병원
조형우	〃 - 성주병원
강신경	〃 - 대구정형외과의원
허봉옥	〃 - 조외외의원
전제균	〃 - 이광외과의원 물리치료실 개설
이보연	〃 - 박영호외과의원
최명규	〃 - 인선의원

내가 밭던날!

설 암

지난 2월 20일 기억된다.

제법 쌀쌀한 이른 봄의 퇴근길이었다. 학교 후배를 만나기 위해 통근버스를 안타고 서대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골목길을 지나 찻길로 몇 미터 앞을 지나는데 남자의 손이 허공을 가르는데 동시에 ‘찰싹’ 하는 피부 접촉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반사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광경은 20세쯤(대학생인듯 하다)되어 보이는 남자가 연인인 듯한 여자를 무자비하게 시리 따귀를 때리는 소리였다. 그것도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고 가로등도 미쳐 켜지지 않은 시간에 말이다. 평소 여성보호주의자(?)임을 자처해온 나로서는 용서치 못할 광경이었다. 그건 그렇고 그러한 광경을 바라만 볼 뿐